

## 천안택시 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개인택시 천안지부 김혜경 지부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또 천안 지역의 택시운수노동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택 위원장님 오늘 저더러 용기 내라고 아주 힘있게 기백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또 저와 개인적인 이런 저런 인연으로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그리고 택시운송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 받기를 너무 얘기가 길면 밥상머리에서 인기가 없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밥 먹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뵈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새로 또 우리를 도우러 입당해 주신 박범계 판사님 같은 분도 또한 계십니다. 누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는 그것도 아직 아무도

잘 모릅니다. 각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13대 88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풍파 없이 또박또박 당선되었다라면 지금 아마 4선 국회의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절이 수상했는지 제가 불운했는지 90년에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김영삼 당시 총재가 민정당하고 합당하는 바람에 저는 그때 따라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았던 것이 제 운명을 훨씬 풍파가 심한 운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여섯 번 선거를 해서 네 번 떨어지고 두 번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당선된 것도 한번은 국회의원 임기 절반이 한두 달 모자라는 한번 당선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참 고생을 했다고 보면 고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늘이 줄줄이 편안한 길로 가서 당선되는 것만 꼭 좋은 일이 아니고 고생하고 풍파를 좀 겪어도 또 큰 일을 맡기려는 뜻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출발했던 13대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회에 절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3분의 1을 조금 넘게 남아있고 다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바뀌었다라면 지금 국회라도 그대로 꾸준히 갈 수 있을 텐데. 제 짐작에는 다음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견으로는 절반 이상 바뀌어야 한다. 3분의 2는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낯은 정치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습관을 한번 익혀놓으면 그것이 뒤에 바뀌지를 않고 자꾸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낯은 시대정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주의가 어떻다 권위주의가 어떻다 가신 정치측근정치 얘기도 하고 돈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들은 뒷전이고 정치인들끼리 나라의 운영과 국민들의 운명들을 밀실에서 흥정하고 하는 이런 정치가 그동안에 우리 정치의 병폐였습니다. 상당히 민주화되었지만 이 병

폐를 우리가 고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로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저는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많이 바뀌어야지만이,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저 구경하듯이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 정치를 바꾸어나가려고 합니다.

왜 손잡지 않냐 왜 포용하지 않냐, 김영삼 前 대통령이 민정당하고 손잡아서 우리 정치에 잘된 것 하나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도 부득이 한일이었지만 또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았는데 끝내 뭐가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손잡은 정치가 그 뒤에 바로 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이 들더라도 저는 손잡을 사람하고 손잡고 손잡지 않을 사람하고는 손잡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에 와서 잘못된 정치를 너무 많이 배워버리고 너무 약삭 빠르고 너무 이해관계에 밝은 그래서 원칙없이 처신하는 정치인들과 손잡지 않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손잡아서 한국정치를 새롭게 바꾸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나중에 밥먹고 아마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한 개인에게 내일의 과제가 있다면 또한 한 국가의 내일이 있습니다. 또 인류사회의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그 속에 높은 문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사회들을 모두 바랍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한국이 해야될 나가야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어야 됩니다. 동북

아시아가 세계중에서 아주 역동성이 있고 많은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의 시대입니다. 이 희망의 시대가 남북의 분단과 동서의 대결로 인해서 서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충분치 못해서 유럽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가 아직까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문제가 풀리면 동북아시아가 세계중심의 지역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활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우리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시대를 만들어나가면 그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남북정책을 잘해야 합니다. 경제제재 잘못하면 바로 전쟁위협으로 이어지고 또 경제제재를 잘못하다가 남북간에 대화가 끊겨버리면 북한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로만 가면서 잘 풀리지 않으면 전쟁얘기가 나오고 그때 남한은 아무런 견제수단을 잃게 되는,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지원을 끊어라 경제협력을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전쟁하자는 뜻과 같아집니다. 실제로 전쟁을 했을 때 1백만명 이상이 희생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94년도에 전쟁이 그야 말로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험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 관해서 하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남북관계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수도권이 너무 포화상태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풀고 위축되고 지금 쇠퇴해 가는 지방경제를 살려내야 됩니다. 지방경제를 살려내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국민간의 갈등 때문에 또 새로운 사회 큰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갈등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써 우선 오랫동안 그동안에 시도되다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는 이상더 연기할 수가 없다. 30년 동안 중앙집중이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30년 계속 노력해야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발을 딛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그 지방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충청도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사회가 도덕적으로 좀더 성숙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 사회 원칙이 바로 서고 가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사회 문화수준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이나 경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사회의 원칙을 바로 잡는 시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한국의 당면 전략을 동북아시대를 열고 지방시대를 열고 원칙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 원칙의 시대 아래 물론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왔던 번영과 또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의 안정 이런 것은 또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이와 같은 목표로 내걸고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도 안정시키고 부동산 주택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지출을 제대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문제도 꼭 해결해서 빈부격차가 훨씬 줄어들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오늘의 생활에 너무 시달리지 않고 내일의 생활에 대한 큰 불안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을 짧게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보니까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같이 잡수시고 마치고 여러분들 제게 하실 말씀계시면 듣고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